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자의 수준에 입각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기관내의 컴퓨터 사용혁신 확산을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한 상부관리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특히 컴퓨터 관련지식이 동료간의 접촉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사용혁신의 확산에 있어서 선도자(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도자(집단)의 위치를 점하는 구성원 중 전산관련 요원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바, 이들을 육성·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 및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혁신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혁신의 확산은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연령이 많은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혁신의 확산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확산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컴퓨터와 관련한 교육 및 전문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공공기관에서의 컴퓨터 사용혁신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사용자의 측면에서 혁신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에게 컴퓨터와 관련한 워크샵, 프로그램 설명회, 또는 세미나와 같은 전문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선발시 전산지식이 풍부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조직 내부에서 혁신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들의 더 많은 인원확보 및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부가하여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구성원들의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또한 하드웨어(H/W)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화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S/W) 및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보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